

경북지방우정청, 적십자사와 손잡고 소외계층
위한 '든든 도시락' 나눔 구슬땀

경북지방우정청(청장 박태희)은 10월22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대한 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와 공동으로 지역 소외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반상(도시락)'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을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매년 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꾸준히 급식 봉사를 이어오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여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태하 경북지방우정청장이 직접 참석해 우체국 임직원 및 우체국FC 사랑나눔봉사단 회원 20여 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30여 명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200세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방우정청은 소외계층 급식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대한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박태희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이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성실히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경북지방우정청 모형영업과	책임자	과 장	조경래 (053-940-1621)
		담당자	주부과	윤현근 (053-940-1625)

[사진 1] 박태희(왼쪽 두 번째) 경북지방우정청장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행복한 밥상' 후원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 '행복한 밥상' 나눔 활동에 참여한 경북지방우정청 FC연합회 봉사단 모습

